

자율주행차용 핵심 카메라 기술개발 교두보 마련한다

도, 자동차융합기술원·HNT일렉트로닉스와 협약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시스템 등 공동 연구개발 나서

전북도는 24일 (재)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상수)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주)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대표 김진현, 이하 HNT)가 업무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전장기술과 자동차기술의 융합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래 자동차의 3대 키워드인 친환경, IT융합 및 안전기술 강화의 공통점인 전장기술을 선도하고 가까운 미래기술인 자율주행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 거점을 구축하고 기술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미래형 자동차 기술선점을 위한 협업'이라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크다.

이번 협약은 HNT가 그 동안 휴대폰

시장에 집중해 왔던 소형 카메라 기술을 미래형 자동차 분야로 응용·확대하고, 지역의 전장부품기업과 상호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상호 업무협약을 통해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시스템(SVM, Surround View Monitoring system), e-Mirror, Night Vision 등의 제품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기술 지원, 차량적용 실증평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 협약을 계기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자동차 전기·전장분야의 활성화와 집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연관 산업

과의 융합기술 개발 및 협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다"고 전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상수 원장은 "국내 최초의 상용차 주행시험장 가동,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점진기지 조성과 같은 주요 현안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전기·전장 전문기업들과의 기술협업은 필수적이다"면서 "전라북도가 미래 상용차의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NT 김진현 대표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연구역량과 주요 인프라 및 새만금 주변을 둘러 본 후 "이번 기술협력을 시작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내에 연구소 분원을 설치해서 연구개발 거점을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할 계획이다"며, "카메라 모듈 제조기업인 HNT는 향후 자동차 전장사업까지 아우르는 선도적 기업이 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전북도는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을 강사로 초청해 도와 시·군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와 위·수탁업체 직원 등 1백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및 위·수탁 업무가 있는 도청 및 산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교육과, 개인 정보 처리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방법 및 침해사고 시 대응 방법, 시군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진단방법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전북도는 개인정보 조례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제·개정,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안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사이버 침해행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중 24시간 개인정보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선관위, '민주주의 발전소' 개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민주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민주주의 발전소를 청사에 설치하고 24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발전소는 다양한 선거자료와 기록사진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선거역사관, 선거카페, 선거포토존, 선거영사관, 선거놀이터, 선거와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선거체험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역사관은 우리나라의 최초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초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17년 5월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까지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자료 등이 전시된다.

또 선거포스터, 선거 표어, 투표용지, 기표용구 등 선거용품들의 변천 과정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거변천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선거체험관에는 선거공약이나 선거별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선거공약·선거별보 만들기', '선거공약 발표하기' 코너와 투표와 개표과정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투·개표 체험' 코너, 미래유권자들이 선거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선거유세 체험' 코너로 운영된다.

특히, '선거공약·선거별보 만들기' 코너는 단순 체험 뿐만 아니라 학생회장선거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재미는 물론 실용성도 갖추고 있다.

선거포토존에는 자신의 투표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거놀이터에는 '불법선거를 잡아라!'의 선거와 연계한 두더지 게임, 기표대 만들기 등의 게임을 진행하여 선거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해 선거인문학 강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회의가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2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회의에 송하진 도지사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하고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도내 5개 대학과 카자흐스탄서 유학생 박람회

전북도는 전북도내 5개 대학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유학생 박람회를 성공리에 열고, 유학생 유치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21일과 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전북도, 전북대, 전주대, 군산

대, 우석대, 원광대 등이 전라북도 연합부스를 설치하고 유학설명회를 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 지역 국제교류 강화 및 유학생 유치에 힘써온 전라북도 5개 대학과 힘을 모아 지역 내 유학생 다변화와 우수 유학

생 확보에 주력하고자 기획되었고, 국립국제교육원과 알마티 한국교육원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도는 전북도내 대학의 국제교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도내 대학에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 유학생 페스티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달라진 동물보호법 "알아야 막아요"

동물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상향·영업관리 강화

3월 22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고 관련 영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처벌수준과 영업기준이 강화된 만큼 달라진 동물보호법을 바로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들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반려견 목줄 미착용·맹견(현행 5종)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 조치 위반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동물 미등록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처벌수준이 상향됐다.

또한, 미등록·무허가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또한, 금지행위가 추가 확대됐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추가,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영업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됐다. 기존 동물 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에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규로 발생한 서비스업종인 동물전사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되어 이 영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동물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 75마리당 운영인력 1명을 확보해야 하며,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소위 '뜯장')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사용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는 8개월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집에서 소규모로 동물을 생산하는 브리더(breeder)나 캐터리(cattery)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강승수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에티켓을 준수하고, 영업자는 법적사항을 지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동물보호법을 바로 알고 실천을 통해 피해를 막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5월부터 동물보호 캠페인 과 함께 6~7월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다. /김진성 기자

제55회 법의 날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제55회 법의 날 법치주의 수호의지를 다집니다!

- 마을변호사 현지상담을 통한 법률봉사에 앞장서는 전북변호사회!
- 국선변호인 활동을 통한 인권옹호에 앞장서는 전북변호사회!
-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도민화합에 앞장서는 전북변호사회!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도민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사무국 ☎ 063)252-7710, Fax: 0505-299-7568

회장 황규표

제1부 회장 남준희		제2부 회장 홍요셉	
총무상임이사	박형윤	이사	황인택
재무상임이사	이희열	이사	윤성욱
공보상임이사	이덕춘	이사	지관엽
인권상임이사	장석재	이사	강성명
교육상임이사	김학수	이사	국윤호
법제상임이사	정재원	이사	이종기
여성상임이사	이연주	이사	최낙준
군산상임이사	이현규	이사	강영신
정읍상임이사	채규달	이사	김수태
익산상임이사	전완수	이사	임영곤
		이사	박민수
		이사	김현승
		이사	이삼일
		이사	김용선
		이사	김영노
		이사	국순화
		이사	박일지
		이사	우아름
		이사	하현환
		이사	박기봉
		감사	황정열
		감사	홍호성